

복지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조직 (2)

김 세 익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1. 영국도서관행정의 이원제(二元制)

복지국가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에서는 도서관 행정이 단일화되지 않고 두가지 행정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와 같은 이원제 도서관 행정방식도 따지고 보면 철저하게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점에서는 영국에 뒤질 것이 없지만 각 주마다 주법이 다르고 행정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미국적 획일주의(劃一主義)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행정의 원칙과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같은 주중심의 행정형태에 있어서도 도서관에 관해서는 국가계획(National plan)이 가능하지만 그러면서도 각주의 특수성에 따라 주단위로 소유의 도서관행정을 실시하는 하고 있다. 미국에 국가적 규모의 도서관법이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權限)도 미국에 뒤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분산적 행정체제속에서도 도서관만은 언제나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시립도서관 체제 이외에 카운타이부러리(County Library)제도가 있다. 이 카운타인 말은 우리 나라의 행정단위와 비교해 보면 다소 애매한 개념이다. 일본에서 나오는 책이나 도서관 관계 논문에서는 필자에 따라서는 카운타이부러리를 현립(縣立)도서관 또는 군립(郡立) 도서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직접 영국에 가보면 이 카운타라는 용어는 도(道) 보다는 작고 군(郡) 보다는 큰 지리적구역(Geographical Area)이다. 일본식 현(縣)은 우리 나라의 경우 도(道)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운타이부러리는 도립도서관 보다는 약간 작고 군립도서관 보다는 더 큰 도서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번역은 군립도서관이 옳다. 시읍도서관은 통털어서 시립도서관(Municipal Library)(Municipal Library는 시정(市政)도서관이라고 번역되지만 여기에서는 City Public Library의 뜻으로 사용된다)이라고 하여 각 시·읍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경제적 이유나 또는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지

못하고 분산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시립도서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도서관 봉사는 카운타이부러리에서 총괄적으로 맡고 있다. 이것을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만약 경기도의 지리적 범위에는 서울특별시도 포함되고 있다고 본다면 서울이나 인천 수원 평택같은 데서는 저마다 시립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시립도서관의 봉사를 받고 있지만 자체의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읍면에 대해서는 카운타이 도서관이 총괄적으로 그곳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맡고 있다. 만약 안양읍에서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양읍에 대한 봉사는 시흥군립도서관에서 한다는 뜻이 된다.

2. 공공도서관 설립의 권한(權限)과 행정조직

영국에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의무가 아니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 카운타와 특별시 그리고 런던의 특별구(Metropolitan borough)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단체에는 예외 없이 잘 조직된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그외의 시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그 지역의 지방의회(地方議會)에서 도서관 설치의 건이 의결되어야 비로서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카운타이부러리는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도서관 봉사를 하게 된다. 영국의 최하부 행정단위인 면이나 리(里)는 도서관 설치의 권한이 인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리에는 독자적인 공공도서관이 없으며 따라서 면·리는 모두 카운타이부러리의 봉사범위에 들어 가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Municipal Library)와 군립도서관(County Library)의 두가지 체제를 이원적으로 병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 있어서의 카운타가 반드시 우리 나라의 도나 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카운타이부러리(County Library)

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도립도서관(Provincial Library)과 미국의 주립도서관(State Library)와 동일하지는 않다. 영국은 본래 4개의 왕국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스코트랜드 북아일랜드의 4개의 왕국의 연합체로서 성립된 나라다. 영국사람들은 영국을 연합왕국(United Kingdom 약해서 U.K.)라고 부르며 잉글랜드란 용어는 우리는 영국전체의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그들의 경우는 잉글랜드왕국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카운티는 우리 나라의 도에 해당하지는 않고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도와 군의 중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립도서관과 카운티라이브러리는 카버하고 있는 봉사구역이 다를 뿐이지 봉사방법이나 기능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영국 국민들은 누구나가 완비된 도서관 봉사를 받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의 봉사를 받는가 혹은 도립도서관의 봉사를 받는가의 차이뿐이며 봉사내용이나 질적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물론 영국의 각 공공도서관의 규모나 봉사량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으나 그것은 고도로 발달된 도서관조직망을 통한 상호협조방식에 의하여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가진 지역사회의 주민일지라도 충분한 도서관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중에서 일부는 도서관운영에 충당되고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도서관세(Library Tax)라고 부르는데 시립도서관의 봉사를 받는 주민들은 시에 내고 카운티라이브러리의 봉사범위에 사는 주민들의 도서관세는 카운티에 납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도서관측에서도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만 봉사하면 된다. 행정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도서관은 도서관위원회(Library Committee)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시(市) 도서관위원회는 그 시의 교육위원회와 동격이지만 카운티라이브러리의 경우는 카운티의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에 예속되는 Sub-Committee에 의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카운티라이브러리의 도서관장은 그 카운티교육위원회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교육위원회와 도서관의 행정적인 관계가 시립도서관과 카운티라이브러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도서관 조직으로 보면 시립이나 카운티라이브러리가 서로 많은 분관(Branch Library) 준분관(Sub branch Library) 그리고 이동도서관(Mobile Library)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립의 경우는 그 봉사지역이 시의 행정구역과 동일한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시의 중심지에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을 두고 하향식(下向式)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봉사지역이 카운티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카운티라이브러리의 경우는 그 카운티에 산재하고 있는 분관 준분관 이동도서관 등의 서비스의 총계가 카운티라이브러리의 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향식(上向式) 봉사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군립도서관장(County Librarian)이 있는 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산하의 많은 공공도서관의 통계 연락 집중 관리 등의 행정적인 일을 하고 도서관자체의 봉사는 2차적인 책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도 본부(Headquarter)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형태는 미국의 주립도서관(State Library)나 우리나라의 도립도서관(Provincial Library)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다.

3. 카운티라이브러리의 운영의 실제

영국에 가보면 시립도서관도 많지만 영국공공도서관의 기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카운티라이브러리의 완벽한 조직이며 그 정력적인 활동이라고 느껴진다. 복지사회에 있어서의 정신적 지적복지의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 도서관 활동의 면모는 카운티라이브러리의 조직과 그 활동에서 엿볼 수가 있다. 필자가 본 범위내에서는 미국보다도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카운티라이브러리의 운영형태는 대개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집중방식(Centralized System)이다, 본부에서 각 분관 준분관 이동도서관을 집중적으로 통괄 관리하는 방식이며 또 하나는 지역방식(Regionalized System)인데 이것은 카운티내의 지역을 또 구분하여 그 구분된 지역안에 있는 하나의 분관을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로 하고 (이것을 영국에서는 Regional Library라고 부른다) 그 지역내의 각 분관 준분관 이동도서관을 통괄 관리시키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카운티라이브러리의 본부의 권한을 하부에 분산 이양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도서관(Regional Library)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본부와 연락을 취할 뿐만 아니라 본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세번째 형식은 위임방식(Delegated System)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정과 도서관의 기본적 정책 이외에는 카운티라이브러리가 각 부랜치라이브러리에 대하여 그 권한을 거의 전면적으로 위임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영국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카운티라이브러리 운영의 방식은 두번째인 지역방식(Regionalised System)이다. 카운티내의 봉사지역을 수십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그 나누어진 지역에 본부(Regional Headquarter Library)를 두고 그 밑에 하향식으로 여러개의 분관 준분관 도서관교환센터(Gen

eral center) 학교도서관센터 (School Library Center) 등의 서비스포인트를 두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 (Mobile Library)을 한대씩 배치시키고 있다.

이동도서관은 우리 나라에서는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영국의 경우 도회지의 중심지에서도 이동도서관의 봉사를 볼 수 있다. 인구가 조밀하여 그곳에 있는 분관의 봉사만으로는 충분치 못할 경우 보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이동도서관이 있고 걸음걸이가 부자유스러운 불구자나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은 비교적 가까이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이 도심지에서도 봉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일반적으로 외출불능자에 대한 도서관 봉사(Service for shut-ins)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우편대출(郵便貸出)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우편대출외에 이동도서관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복지사회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분관도 전일제분관 (Full-time Branch Library)와 준분관 (Sub-Branch Library)가 있다. 주당 30시간이상 개관할 때 전일제라고 하고 30시간이하 일때 개관요일이나 개관시간수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 경우를 준분관이라고 부른다. 어떤 시골에서는 하루에 두시간만 개관하는 데도 있고 한주일에 3일만 개관하는데도 있다. 이용자가 적거나 이용빈도가 낮을 때에 이런 준분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영국식 합리주의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사서는 전임이 아니라 분관사서가 교대로 출장 나와서 근무하거나 그 지역의 가정주부나 알바이트 학생들의 파아트 타임 근무에 의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장서수도 일정하지는

않지만 분관의 경우 평균 3~4만권, 준분관의 경우는 5,000에서 10,000권정도가 보통이고 이동도서관의 경우는 2,000권 큰것은 4,000권도 수용할 수 있다. 이동도서관에는 운전수와 도서관학교를 졸업한 유자격 사서와 틀이 있는데 순회기함은 한주일에 한번 어떤 곳은 한달에 한번씩 순회하는 데도 있다. 대출방식은 가족단위로 하고 개인단위의 대출은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개인단위의 대출도 하고 있다. 대출권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영국에서는 대출도 되지 않는 책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도서관의 경우는 성인용 소설, 비소설, 아동도서를 각각 3분의1 정도씩 싣고 다닌다. 주차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곧 그곳을 정한 시각에 찾아 갈 수가 있다. 카운터라이부러리의 본부는 우리 나라로 말하자면 행정 본부가 있는 군청소재지에 있으며 자료의 구입, 정리 각 분관에 대한 자료의 배부, 서지서비스, 특수자료의 수집과 보존, 상호대차를 위한 사무 그리고 카운터 전체의 도서관행정의 통제 등의 일을 하며 도서관 자체의 봉사는 2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부 도서관은 도서관 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도서관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본부활동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점은 고도로 발달된 도서관 상호대차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다. 영국공공도서관의 영광은 이 상호대차제도의 완벽성에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센터는 본부도서관이다. 복지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이란 모든 국민에게 빠짐없이 도서관 봉사를 할수 있다는 점과 또 모든 국민이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도서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끝)

1971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 豫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 學術雜誌 豫約購讀에 關한限 世界의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貴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부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을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費사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을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포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

